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07월 28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신상발언-유인애 강북구의회 의원

“지난 본회의 세월호특별법 통과 유감”

유인애 의원(수유2,3동 번1,2동)은 25일 본회의에서 지난 제181회 첫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세월호 특별법 결의안을 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던 점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다섯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며 “소통하는 의정, 강북구민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해놓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소통과 배려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며 유감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유 의원은 “34만 강북구 주민들의 대변자인 강북구의회는 무엇보다 강북구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앙에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을 지방의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조선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



고 납득이 안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제7대 강북구의회가 좀더 배려와 존중으로 또한 이해와 서로

의 용납을 통해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조선으로서 첫 회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의문이 들지만, 의장은 앞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를 끌어나가고 의원들은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서 제7대 강북구의회가 강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홈페이지
www.igangbuk.com